

‘정읍 소싸움대회’ 맥 끊기나



정읍시, 내년 예산안 반영 안해 지난해부터 3년 연속 취소 위기 “코로나 상황따라 내년 재검토”

20여년 간 이어진 ‘정읍 소싸움대회’의 내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1일 정읍시와 정읍 녹색당에 따르면 정읍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폐지 절차는 아니고 코로나19 종식 상황을 봐 내년 여름 정도에 개최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읍시는 소싸움 대회와 소싸움 육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했다. 2017년 4억4000여만원, 2018년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19년과 올해도 각각 2억2000여만원, 1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해마다 1억원가량씩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회를 취소했다. 정읍에서는 1996년 소싸움 놀이가 처음 개최됐다. 2003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만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대회가

‘동물 학대’라는 주장과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문화’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정읍 녹색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는 ‘소싸움 도시’가 아닌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동물 친화적 정읍시’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중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가축의 대규모 이동이 수반되는 축산행사는 갈수록 개최하기 힘들 것”이라며 “발상을 전환해 창의적인 미래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주)조은, 남원시에 물티슈 300박스



남원시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노암농공 단지에 있는 생활용품 생산업체 (주)조은이 500만 원 상당의 물티슈 300박스를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또 남원지역 최초 ‘아너소사이터’ (1억 이상 고액기부자)에 가입한 김숙희 법사량위원 남원지

구협의회장이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가속돼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변 이웃을 한 번씩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이웃 돕기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군 “생활공구 무료로 빌려가세요”

전동드릴·전자파측정기 등 16종

순창군은 오는 7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보관하기 부담스럽거나 사용 빈도가 적은 생활공구를 대여하는 서비스다. 순창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여신청서를 작성하면 3일 이내로 대여할 수 있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는다. 대여 공구는 전동 드릴, 전자파 측정기, 라돈 측정기 등 총 16가지다. 설태송 순창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상 생활에서 가끔 사용하지만 구입이 어려운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한다”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해 공유경



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원도심 골목에서 ‘막걸리 한잔’

정읍시, 주향거리 조성 골목상권 살리기...농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정읍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주요 시책으로 지역 고유 먹거리를 소재로 한 ‘정읍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쇠퇴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정읍시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관련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실시하며 민관 상호협력력을 다져왔다. 또 정읍 막걸리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입지타당성과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 9월 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특화거리 내 창업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정읍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 구간 내 창업자 모집은 자생능력과 강한 참여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창업자에게는 공동체 시민장안대회를 거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리모델링과 간판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공동브랜드 물품 등을 일부 지원해 정읍에서 생산되는 각종 주류를 판매하게 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는 변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젊고 생기있는 거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막걸리와 그 지역의 명소, 먹거리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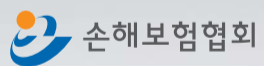
익산 공공 승마장 내년말 완공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 109억원 투입 이달 착공

익산시는 용안면 남포리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에 공공 승마장을 짓는다고 1일 밝혔다. <조감도> 공공 승마장은 이르면 이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109억원을 들여 3만9000여㎡ 부지에 실내외 마장, 원형 마장, 승마체험공간, 말산업 체험관 등을 갖춘다. 이와 별도로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 역세단지에 총연장 16km 길이 승마길도 만들 예정이다. 익산시는 공공 승마장에서 청소년과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승마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 승마장을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농촌체험 시설 등과 연계해 새로운 종합 레저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